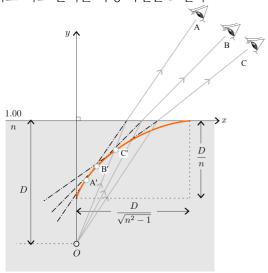
평면 경계면에 의한 굴절 상과 아스트로이드의 재발견

M. Ryu mingshey@hafs.hs.kr

January 28, 2025

1 도입

평평한 수면 아래의 점 물체를 수면 위에서 바라볼 때, 상의 위치는 시점(POV)에 따라 달라진다. 시점이 움직임에 따라 법평면 내에서 관찰되는 상은 "찌그러진 아스트로이드"라고 불리는 특정 곡선을 그린다.



물체와 시점을 포함하는 법평면을 xy-평면으로 하고, 법평면과 수면의 교선을 x-축으로, 물체를 통과하는 법 선을 y-축으로 하자. 그러면 상의 자취는 다음 곡선의 일 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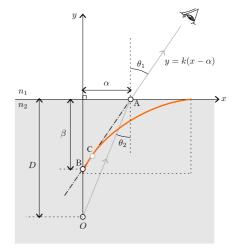
$$\left|\frac{x}{M}\right|^{2/3} \; + \left|\frac{y}{N}\right|^{2/3} = 1, \label{eq:energy_equation}$$

여기서 $M=D/\sqrt{n^2-1}$ 은 전반사의 임계각에 의해 결정되는 입사 거리의 최댓값이고, N=D/n은 바로 위에서 관찰할 때 물체의 겉보기 깊이이며, D는 물체의 실제 깊이이고, n은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이다.

2 공식의 유도

공기와 물의 굴절률을 각각 n_1 및 n_2 라고 하자. 공기와 물의 경계면 아래 깊이 D인 곳에 점 물체 O가 있다. 물체 에서 출발한 광선이 수면을 y-축으로부터 α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법선으로부터 θ_2 의 각도로 경계면에 입사한 후,

동일한 법선으로부터 θ_1 의 각도로 공기 중으로 굴절되다.



이 때 스넬의 법칙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.

$$\sin \theta_1 = \frac{n_2}{n_1} \sin \theta_2 = n \sin \theta_2.$$

굴절된 광선의 연장선은 다음 방정식으로 표현된다.

$$y = k(x - \alpha).$$

여기서

$$k = \frac{1}{\tan \theta_1} = \frac{\cos \theta_1}{\sin \theta_1}$$

이고, 스넬의 법칙을 고려하면,

$$k = \frac{\sqrt{1 - n^2 \sin^2 \theta_2}}{n \sin \theta_2}.$$

이 직선은 y-축과 $y = \beta$ 에서 만나므로,

$$\beta = -k\alpha$$
.

기하학적으로 다음을 얻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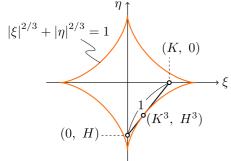
$$\alpha = D \tan \theta_2 = \frac{D \sin \theta_2}{\cos \theta_2},$$

$$\begin{split} \beta &= -k\alpha \\ &= -\frac{D\sin\theta_2}{\cos\theta_2} \frac{\sqrt{1 - n^2\sin\theta_2}}{n\sin\theta_2} \\ &= -\frac{D\sqrt{1 - n^2\sin\theta_2}}{n\cos\theta_2}. \end{split}$$

이제, $K = \alpha/M$ 및 $H = \beta/N$ 이라 하면,

$$\begin{split} K^2 + H^2 &= \frac{\alpha^2}{M^2} + \frac{\beta^2}{N^2} \\ &= \frac{\left(n^2 - 1\right)\sin^2\theta_2 + 1 - n^2\sin^2\theta_2}{\cos^2\theta_2} \\ &= \frac{1 - \sin^2\theta_2}{\cos^2\theta_2} \\ &= 1 \end{split}$$

 $\xi=x/M$ 및 $\eta=y/N$ 이라고 하면, 시점이 xy-평면에서 움직임에 따라, 점 $A(\alpha,0)$ 및 $B(0,\beta)$ 도 이에 따라움직이고, $\xi\eta$ -평면에서 점 (K,0) 및 (0,H)도 이에 따라움직이며,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로 일정하게 유지된다.



이러한 선분의 포락선은 "아스트로이드" $(astroid^1)$ 로 알려져 있으며, 다음 방정식으로 표현된다.

$$|\xi|^{2/3} + |\eta|^{2/3} = 1.$$

상은 선분 \overline{AB} 와 움직이는 선분의 포락선의 접점 C에 위치한다. 이는 이 순간 인접한 광선 다발이 발산하는 점이기 때문이다. $\xi\eta$ -평면에서 해당 점은 (K^3,H^3) 이다.

따라서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상의 좌표 $(x_{\rm C},y_{\rm C})$ 를 얻을 수 있다.

$$\begin{cases} \xi_{\rm C} = \frac{x_{\rm C}}{M} = K^3 = \frac{\alpha^3}{M^3}, \\ \eta_{\rm C} = \frac{y_{\rm C}}{N} = H^3 = \frac{\beta^3}{N^3}. \end{cases}$$

즉,

$$\left\{ \begin{array}{l} x_{\mathrm{C}} = \frac{\alpha^3}{M^2}, \\ \\ y_{\mathrm{C}} = \frac{\beta^3}{N^2} = -\frac{k^3\alpha^3}{N^2}. \end{array} \right. \label{eq:continuous}$$

여기서

$$\sin \theta_2 = \frac{\alpha}{\sqrt{D^2 + \alpha^2}}$$

를 사용하여

$$k = \frac{\sqrt{D^2 - (n^2 - 1)\alpha^2}}{n\alpha},$$

를 얻을 수 있으며, 상의 위치를 α 에 대한 매개변수 함수로 유도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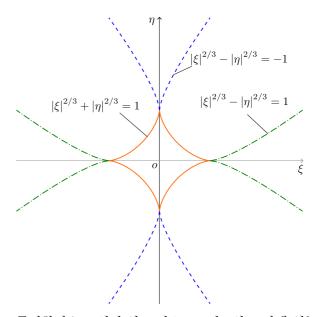
$$\begin{cases} x_{\rm C} = (n^2 - 1) \frac{\alpha^3}{D^2}, \\ y_{\rm C} = -\frac{n^2}{D^2} \frac{\alpha^3}{n^3 \alpha^3} \left\{ D^2 - (n^2 - 1) \alpha^2 \right\}^{3/2} \\ = -\frac{D}{n} \left\{ 1 - (n^2 - 1) \frac{\alpha^2}{D^2} \right\}^{3/2}. \end{cases}$$

3 시점이 물 속에 있는 경우

물체가 경계면 위 높이 D인 공기 중에 있고, 시점이 물속에 있는 경우, 상대적인 굴절률은 1/n < 1이고, 유사한 추론에 의해 다음 방정식을 얻는다.

$$|\xi|^{2/3} - |\eta|^{2/3} = -1,$$

여기서 $\xi=\frac{x}{W}$ 및 $\eta=\frac{y}{Z}$ 이고, $W=\frac{nD}{\sqrt{1-n^2}}$ 및 Z=nD인데, 이 곡선의 모양에 대한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.



물리학적으로 의미 있고 아스트로이드와도 관계 있는 이 곡선

$$|\xi|^{2/3} - |\eta|^{2/3} = \pm 1$$

에 아직 이름이 없다면, 아스트로이드에 대해 이 곡선은

 $^{^1}$ "소행성"을 뜻하는 asteroid와 혼동하지 말 것.

타원에 대한 쌍곡선과도 같은 관계가 있으므로 "쌍곡-아스트로이드"(hyperastroid)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?

아스트로이드는

$$\left|\xi\right|^r + \left|\eta\right|^r = 1.$$

와 같이 정의되는 "초타원" (superellipse)이라는 곡선 계열에 속한다. 아스트로이드는 r=2/3인 경우이다.

그러나 필자가 알기로는 다음 형태의 곡선 계열에 대한 이름도 없다.

$$\left|\xi\right|^r - \left|\eta\right|^r = \pm 1$$

이것은 "초쌍곡선" $(super-hyperbola^2)$ 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.

$$y(x,K) = \mp \frac{\sqrt{a^2 - K^2}}{K} \left(\frac{K^3}{a^2} - K\right)$$
$$= \pm \frac{\left(a^2 - K^2\right)^{3/2}}{a^2}$$
$$= \frac{H^3}{a^2}$$

이다. 따라서 정류점의 좌표 (x,y)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한다:

$$\left|\frac{x}{a}\right|^{2/3} + \left|\frac{y}{a}\right|^{2/3} = 1.$$

부록: 포락선으로 정의한 아스트로이드

평면 상의 직교 좌표에서 x 축 위의 점 (K,0)과 y 축 위의 점 (0,H)가 일정한 거리 a를 유지하며 움직인다고 하자. 그러면 $K^2+H^2=a^2$ 이고, 어느 순간 선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

$$y = -\frac{H}{K}(x - K)$$

라 쓸 수 있고, $H=\pm\sqrt{a^2-K^2}$ 임을 이용하면

$$y(x,K) = \mp \frac{\sqrt{a^2 - K^2}}{K}(x - K)$$

라 할 수 있다. K값이 변할 때 두 점을 잇는 선분 또는 직선이 변하며 그리는 포락선은 매 순간 정류점들의 자취, 즉 $\partial y/\partial K=0$ 인 점들의 자취이다. 이 조건을 만족하는 (x,y)들을 구해 보자.

$$\frac{\partial y}{\partial K} = \pm \left[\left(\frac{1}{\sqrt{a^2 - K^2}} + \frac{\sqrt{a^2 - K^2}}{K^2} \right) (x - K) + \frac{\sqrt{a^2 - K^2}}{K} \right]$$

$$= \pm \frac{(K^2 + a^2 - K^2)(x - K) + K(a^2 - K^2)}{K^2 \sqrt{a^2 - K^2}}$$

따라서 정류점의 x좌표는 $x=K^3/a^2$ 이고, 이 때 y좌표의 값은

 $^{^2}$ 같은 의미의 반복되는 어원 때문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 superbola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.